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오늘 오후 2:30 세월호 1주기 추모 기도회가 교육관에서 열립니다.

오늘 오후 12:30 유치부실에서 교육부 회의가 있습니다.

제 35회 서울연회가 16일(목)부터 17일(금)까지 정동제일교회에서 열립니다.

생협에서 사과 분양 신청을 받습니다. 분양가격은 135,000원(택배비 포함)이고, 8월말부터 사과 5박스, 사과즙 1박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김경준 씨와 오진희 씨가 결혼합니다. 예식은 18일(토) 오후 1시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후생동 소담홀 4층에서 있습니다. 축하합니다.

세월호 참사 1주기를 추모하는 행사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시간과 마음을 내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부	행 3:12-19 / 시 4	2부	
예배	요일 3:1-7 / 눅 24:36-48	예배	신 15:12-18

오늘 식당 봉사 : 이현순 정현선 정영례 양정화 박진숙 임옥기 추현영 유병선
 다음 주 식당봉사 : 백혜숙 백성래 정현숙 주은경 박미연 이수자 박기영 이성범
 오늘설거지봉사 : 3남선교회
 다음주설거지봉사 : 4남선교회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 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성서학당	13:30	교육관
중고등부	09:30	교육관	수요집회	11:0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수요성경연구	19:30	교육관
토요성경읽기	10:30	세미나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우리를 당신의 몸으로 삼으소서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주일 낮 예배 순서

자비하신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좋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눈을 돌리는 곳마다 아름답게 피어나는 꽃들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형형색색으로 피어나는 꽃들이 우리의 마음 한 구석을 밝혀줍니다. 일찍 핀 꽃들은 벌써 꽃이 지고 작은 열매들을 맺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도 그렇게 꽃피고 열매 맺게 해주십시오.

주님, 어느덧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의 아픔이 아직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바다 속에 있는 세월호를 속히 인양하게 하시고, 아홉 분의 실종자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철저한 진상 조사와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들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 현금 영수기 및 속회 보고 ·

십일조 및 월정현금

강석남 광상준 최경미 구명자 국지연 권혁순 박혜경 김광일 이부용
 김금순 김기성 이은정 김명순 이교영 김승현 김수진 김애순 김영순
 김영아 김정수 정자현 김정진 김혜정 김종락 박영신 김주영 노우영
 김혜영^a 김희진 박홍재 노성희 김만균 문복순 박예림 박창운 허정운
 방극숙 배삼순 서수진 서원금 신진식 변혜정 오숙현 왕수명 원용일
 최현선 유금주 윤영미 이동천 이우상 이계월 이인웅 오송경 이재문
 이현숙 임형욱 장영숙 정두리 정연희 조경자 조지연 최윤희 최지현
 한규숙

감사헌금

김중수 김진중 김필순 문금석 박경선 박용진 김용원 박창운 허정운
 신진식 변혜정 안정준 안종일 정현주 양해일 윤석철 장혜숙 윤정덕
 이광재 이유일 김미희 이치림 강상연 조항범 오현정 차혜심 최경미
 무명5

생일감사헌금

문도현 오송경

녹색꿈헌금

이재애 임승동 백혜숙 무명2

백	혜	숙	박	성	희	오	유	경	백	혜	숙
신	진	식	최	경	미	이	은	옥	심		
장	영	숙	신	영	신	박	경	원	박	경	선
박	홍	재	박	홍	재	김	경	수	안	정	숙
권	미	숙	박	미	영	권	미	숙	박	미	영
김	금	순	김	금	순	유	금	주	김	금	순
곽	권	희	윤	수	진	곽	권	희	김	윤	수
안	홍	숙	오	현	정	안	홍	숙	윤	정	현
김	경	혜	홍	춘	숙	김	희	우	정	송	양
박	혜	경	박	혜	경	박	혜	경	정	송	현
김	재	흥	오	자	영						
김	재	흥	송	형	운						
이	범	석	이	진	영						
이	범	석	곽	상	준						
신	진	식	이	오	복						

경청

불행의 대부분은
경청할 줄 몰라서 그렇게 되는 듯.
비극의 대부분은
경청하지 않아서 그렇게 되는 듯.
아, 오늘날처럼
경청이 필요한 때는 없는 듯.
대통령이든 神이든
어른이든 애이든
아저씨든 아줌마든
무슨 소리가든지 간에
내 안팎의 소리를 경청할 줄 알면
세상이 조금은 좋아질 듯.
모든 귀가 막혀 있어
우리의 행성은 캄캄하고
기가 막혀
죽어가고 있는 듯.
그게 무슨 소리가든지 간에.
제 이를 닦는 소리라고 하더라도,
그걸 경청할 때
지평선과 우주를 관통하는
한 고요 속에/ 세계가 행어나/ 한 송이 꽃 필 듯.

- 정현중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홍 이범석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신진식
소속목사 : 한인철 한정애	
원로장로 :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조병무 방문성	
장로 : 한완식 윤석철 한상익 김인걸 박홍재 김정민 하현철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유청빈
차량 및 교회관리 : 김현동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들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고 아파하는 자와 함께 아파하십시오. 그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에서 멀어질 때 이 세상은 황폐지고, 온전히 그 마음으로 살 때 이 땅에 하나님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아멘. 마음을 자극하는 즐거운 것만 따라 살던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이제는 지극히 작은 자들의 아픔에 공감하며 살겠습니다. 고통을 함께 나누며 살겠습니다. 온전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십시오. 아멘.

청파성서 학당 / 강의: 김기석 목사	수요 낮 집회 / 설교: 김기석 목사
세월호 1주기 추모 기도회	수요저녁성경연구 / 역대기 강의 : 이범석 목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신진식 전도사 김기석 목사	공동기도 김인걸 장로	박민선 선생 박영신 집사

4	영접위원	윤석철 이국노 문홍일 김민화 한상경 정연희
	헌금위원	하현철 박성실

믿음으로 읽는 글

그 분도 들으십니다

... 신과 소통하려는 종교의 차원이 아니더라도, 온 마음을 기울여 듣는 경청은 우리 삶의 품격을 높여줍니다. 시인 정현종이 경청을 노래하는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본래 ‘떨어져도 튀는 공처럼’ 삶의 가벼움을 즐겨 노래해온 시인입니다. 그런 그가 경청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준열하게 목소리를 높이는 까닭은 무엇이겠습니까. 타인의 삶에 귀 기울일 줄 모르는 우리 삶의 태도가 ‘불행’과 ‘비극’을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진정 아름답고 애뜻한 관계라면 ‘경청’의 큰 귀가 너필 거려야겠지요. 수다스런 입에 침묵의 지퍼를 채워놓고, 귀를 열어 ‘너’의 말을 조용히 경청할 줄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나 역시 그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얼마 전에 친구에게서 걸려온 전화를 받고 나서, ‘그런데 친구가 왜 전화를 했지?’하는 의문이 문득 뒤통수를 때리더군요. 나만 혼자 너무 많이 떠들어대고 친구가 하는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았던 것이지요. 혼자만 떠들고 듣지 않았으니 그건 대화가 아니라 독백에 불과했습니다. 나는 탁자에 놓인 전화기를 바라보며 혼자 중얼댔지요. ‘미안해, 친구! 우리가 서로 전화는 했지만, 통화는 못했어. 다음부터는 조심할게!’

우리는 듣는 것에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마음을 기울여 듣기보다는 서둘러 자기 안에서 솟구치는 말을 뱉어내기에 바쁩니다. 내 속의 말을 쏟아내지 않으면 큰 손해라도 보는 듯이. 듣기보다 자기 말을 토해내기에 바쁜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이기 십상입니다. 상대를 배려하지 않고 혼자만 떠드는 사람과 만나고 나면 괜히 불쾌해집니다. 사실 끊임없이 지껄이는 사람은 아무도 자기 말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을 모릅니다.

듣지 않는다는 것은 상대를 신뢰하기를 두려워하거나 겁내고 있음을 뜻합니다. 또한 듣지 않는다는 것은 타인과 늘 분리되어 있음을 뜻하고, 스스로 벽을 쌓아 지옥을 선택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옥을 선택한다는 말은 왜소한 자아의 감옥에 갇혀 있다는 말이지요. 반대로, 마음을 기울여 듣는 사람은 자아의 좁은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듣는 것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상대를 신뢰하고, 상대에게 자기를 내어주며, 친밀한 대화를 통해 상대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됨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부르지요. 마음을 기울인 경청에서 사랑은 꽃피며, 나와 너 사이에 풍요로운 사랑의 강물이 흐르게 됩니다.

시인은 ‘들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존재하는 것들의 소리는 물론 존재 배후의 신비로운 소리까지 들으려는 사람이지요. 정현종 시인은 우리가 마음을 열어 경청할 때, ‘지평선과 우주를 관통하는/ 한 고요 속에/ 세계가 행어나/ 한 송이 꽃 필’ 것이라고 노래합니다. 그 ‘한 송이 꽃’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피어나는 사랑의 개화(開花)일 수도 있고, 사람과 하느님 사이에 꽃피는 합일의 기쁨일 수도 있습니다.

위대한 영성의 대가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들은 눈의 역할보다 귀의 역할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봄’은 우리의 의식을 바깥으로 향하게 하고, ‘들음’은 우리의 의식을 자기 내면 깊은 곳으로 향하도록 하기 때문이지요. 예수의 충성스런 종이었던 마더 테레사 수녀가 그 좋은 모델입니다. 그는 ‘들음’을 수도생활 속에서 적극적으로 실천한 인물이지요.

“당신은 새벽마다 기도한다고 들었습니다. 하느님께 무슨 기도를 올리십니까?” 마더 테레사 수녀가 살아 있을 때 어느 기자가 찾아와 물었습니다. 수녀는 조용히 머리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듣습니다.” 기자가 의아한 표정으로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들을 때, 하느님께서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녀가 대답했습니다. “그분도 들으십니다.”

우리가 위대한 수도자의 깊은 속내를 다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참으로 성숙한 기도는 온 마음을 기울여 경청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영혼의 바탕이 듣기에 알맞은 터가 되도록 해야겠지요. 우주만물과 친밀한 교감 속에 살던 한 인디언 시인의 말처럼, 우리는 ‘소리로 만들어진 집’이니 말입니다.

표현은 다르지만, 복음서에서는 예수를 가리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일컫습니다. 여기서 ‘말씀’은 물론 하느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시를 ‘존재의 집’이라고 한 철학자 하이데거의 말을 빌리면, 하느님의 말씀이야말로 우리 존재의 집입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들어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향해 활짝 나를 여는 순간, 하느님께 받아들여지는 구원의 사건이 일어난다는 뜻일 것입니다. ... - 고진하, 「시 읽어주는 예수」(비채) 중에서